

미전도종족 선교의 중심성

김병선 선교사

커피를 조리할 때, 예쁜 머그컵을 준비하고, 물의 온도를 맞추고, 크림과 설탕의 분량을 완벽하게 넣었다 하더라도, 커피를 넣지 않았다면, 그것은 커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미전도 종족"에게 관심이 없고,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 사역을 "선교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은 성경에 맞춰져야 합니다. 선교 사역도 성경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교 방향은 분명합니다. 모든 종족(All Peoples on Earth)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창 12:3).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종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시 46:10, 72:11, 86:9, 102:15, 단 7:14, 합 2:14, 말 1:11). 예수님께서 구약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요약해 주시며, "그(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하셨습니다(눅 24:47). 보좌 앞의 24 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을 찬양한 내용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계 5:9).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사람이 없는 종족은 지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예언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습니다(계 7:9-10).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 날이 오기 전에 필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

라" 하셨습니다(마 24:14).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언된 후에라야 예수님의 재림과 유형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끝 날이 도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목적과 방향이 위임령에 분명히 보입니다(마 28:18-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자기 민족 제자훈련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타종족 제자훈련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막 16:15).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하셨습니다(눅 24:47-48).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예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표는 모든 민족이 천국복음을 듣게 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의해 예배를 받으시게 만들고, 그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며, 유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마 24:14). 그러므로 미전도종족 복음화의 완성이 모든 선교사역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라는 찬양을 진심으로 부른다면, 그것은 주님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에 집중합시다(사역 대상; 모든 종족).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듣게 만듭시다(사역 내용; 전도, 타민족 제자훈련). 우리 세대에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직접보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